

1. 베를린의 국립근동미술관(페르가몬 박물관)에 소장된 「이슈타르 문(Ishtar Gate)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기원전 650년경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(Ashurbanipal)의 궁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왕의 사자 사냥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.
- ② 기원전 500년경 다리우스 1세(Darius I)에 의해 페르세폴리스에 세워진 궁전의 일부로 페르시아 특유의 동물양식을 볼 수 있다.
- ③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의 우르크에 세워진 지구라트 건축의 일부로 흰 벽돌이 사용된 백색 신전의 출입구였다.
- ④ 기원전 575년경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(Nebuchadnezzar II)가 바빌론에 축조한 성벽의 입구로 선명한 색상의 유약 벽돌을 사용하였다.

2.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적화양식(red-figure)의 도자는 인물을 점토색인 적색으로 남겨두고 바탕을 검은색으로 채워 넣었다.
- ② 조각들은 대부분 채색 과정 없이 대리석 본연의 색으로 완성되었다.
- ③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테나 니케 신전은 코린트식 기둥의 건축이다.
- ④ 쿠로스(Kouros)는 코레(Kore)에 비해 훨씬 다양한 양식을 보여준다.

3. 고대 그리스의 조각 「크리티오스 소년(Kritios Boy)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전 양식이 시작되는 기원전 480년경에 제작되었다.
- ② 파르테논 신전 동쪽 박공 조각의 일부로 몸을 감싼 얇은 천의 형태가 신체의 부드러운 입체감을 강조한다.
- ③ 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몸 전체에 자연스러운 대응 균형이 느껴지는 미묘한 콘트라포스토(contrapposto) 자세를 취하고 있다.
- ④ 기원전 600년경 고졸 양식 초기의 쿠로스(Kouros)상과 비교했을 때 인체 표현이 자연스러워졌다.

4. 로마 미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아치를 사용하여 다리나 수로의 기둥 사이를 연결했고, 나아가 궁륭 천장을 만들었다.
- ② 사실적인 초상조각을 만든 이유는 당시 장례 행렬에서 선조의 밀랍 초상을 들고 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.
- ③ 그리스 조각들을 대량으로 복제하였으며, 점차 자신들만의 양식을 발전시켰다.
- ④ 그리스 건축가들이 최초로 사용한 콘크리트를 벽면 자재로 사용하였다.

5. 아야 소피아(Hagia Sophia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성스러운 지혜’라는 뜻의 이름이다.
- ② 건축가는 트랄레스의 안테미오스(Anthemius of Tralles)와 밀레투스의 이시도로스(Isidorus of Miletus)이다.
- ③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이후 네 개의 첨탑이 증축되었다.
- ④ 네 개의 아치 밑에 있는 벽들이 중앙 돔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.

6. 중세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성 유물 숭배사상으로 인해 순례객 행렬이 이어졌으며, 이는 교회 내부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.
- ② 무거운 석재와 둥근 아치의 사용, 석조 천장의 등장이 특징이다.
- ③ 그리스도의 승천, 최후의 심판, 계시록의 환영 등의 주제가 유행하였다.
- ④ 12세기 교회 건축가들은 고대 로마의 건축을 표방하며 ‘로마네스크(Romanesque)’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.

7. 중세 고딕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도원장 쉬제르(Suger)가 주도하여 증축한 생 드니(Saint-Denis) 수도원은 고딕 건축양식의 기원이 되었다.
- ② 프랑스 툴루즈의 생 세르냉(Saint-Sernin) 대성당은 대표적인 고딕 건축이다.
- ③ 높은 벽이 바깥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외부의 공중부벽(flying buttress)은 고딕 건축양식의 특징이다.
- ④ 얇은 벽에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빛을 건물의 내부로 유입할 수 있었다.

8.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르조네(Giorgione)의 「폭풍」은 명료한 신화적 내용과 고전주의적인 이상미가 돋보이는 피렌체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.
- ② 산드로 보티첼리(Sandro Botticelli)의 「비너스의 탄생」은 관능성의 표현과 고대 신화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.
- ③ 마사초(Masaccio)의 「삼위일체」는 기하학적 원근법을 사용하여 2차원의 벽면에 3차원의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하였다.
- ④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(Leonardo da Vinci)의 「암굴의 성모」는 네 인물의 자세와 몸짓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피라미드형 구성을 지니고 있다.

9.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(perspective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기베르티(Lorenzo Ghiberti)는 저서 『회화론』에서 원근법 이론을 정리하였다.
- ② 1420년과 1450년 사이 피렌체에서는 브루넬레스키, 도나텔로, 마사초, 알베르티 등이 원근법을 탐구하였다.
- ③ 15세기 이탈리아 시에나, 베네치아 등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에는 원근법을 적용한 특징이 나타난다.
- ④ 원근법은 중세 시대에 이어 신이 만든 절대적 재현 체계로 받아들여졌다.

10. 매너리즘(Mannerism) 미술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지오반니 벨리니(Giovanni Bellini) 「성모와 성자들」
- ② 파르미지아니노(Parmigianino) 「긴 목의 마돈나」
- ③ 지오반니 볼로냐(Giovanni Bologna) 「사비니 여인의 약탈」
- ④ 로소 피오렌티노(Rosso Fiorentino) 「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」

11. 17~18세기 유럽의 회화와 조각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안트베르펜 대성당의 제단화인 루벤스(Peter Paul Rubens)의 「십자가를 세움」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가톨릭 교회의 힘이 강했던 플랑드르의 종교미술을 대표한다.
- ② 종교적인 황홀경이 섬세하게 표현된 베르니니(Gian Lorenzo Bernini)의 「성 테레사의 황홀경」은 몽환적인 아름다움과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로코코 미술의 대표작이다.
- ③ 강렬한 빛과 어둠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카라바조(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)의 명암대조법은 ‘테네브리즘(Tenebrism)’이라고 부른다.
- ④ 생애의 대부분을 로마에서 보낸 프랑스의 니콜라 푸생(Nicolas Poussin)은 고대의 신화나 역사를 주제로 한 이상화된 풍경화를 제작하였다.

12. 프랑스 로코코 미술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장 앙투안 와토(Jean-Antoine Watteau) 「시테라 섬으로의 여행」
- ② 프랑수아 부셰(François Boucher) 「비너스의 화장」
- ③ 윌리엄 호가스(William Hogarth) 「결혼 풍속도」
- ④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(Jean-Honoré Fragonard) 「그네」

13. 17~18세기 유럽의 미술 아카데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1648년 파리에 세워진 ‘왕립 회화-조각 아카데미’는 르브룅(Charles Le Brun)의 고전주의 미술 원리와 양식에 기반을 둔 미술 교육을 실시하였다.
- ② 유럽에서 가장 먼저 ‘왕립 아카데미’를 설립한 영국은 초대 회장 조슈아 레이놀즈(Joshua Reynolds)의 영향을 받아 영국 고유의 풍속화를 최고의 장르로 인정하였다.
- ③ 이탈리아 피렌체의 ‘아카데미아 델 디세뇨(Accademia del Disegno)’는 통일된 왕권의 부재로 인해 프랑스나 영국보다 늦게 설립되었지만 공방의 분업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미술교육 제도를 확립하였다.
- ④ 프랑스의 아카데미는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플랑드르와 네덜란드의 풍속화를 이상화된 풍경화나 초상화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.

- ① 바실리 칸딘스키(Wassily Kandinsky)의 추상 회화 이론은 ‘내적 필연성(inner necessity)’보다는 ‘객관적 우연(objective chance)’이라는 초월적인 미학에 기반을 두었다.
- ② 피에트 몬드리안(Piet Mondrian)은 미래주의 미술의 즉흥적인 콜라주에 영향을 받아 추상화 과정을 진전시켰다.
- ③ 1912년 시인 아폴리네르(Guillaume Apollinaire)는 들로네(Robert Delaunay), 쿠프카(Frantisek Kupka)의 추상적인 회화를 ‘오르피즘(Orphism)’이라 명명하였다.
- ④ 카지미르 말레비치(Kazimir Malevich)의 추상 회화는 러시아의 민속 미술, 전통 및 종교와의 절대적인 단절을 표명한 것이었다.

이 면은 여백입니다.